

# 설

## Korean New Year's 가정에배 순서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히 6:14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새찬송가 310장(통 4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흑 밤에 흑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새찬송가 310장

찬 송

다 같이

대표기도

기도자

빌립보서 4:10-13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  
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성경봉독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  
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말 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라'

인도자

새찬송가 85장(통 85) '구주를 생각만해도'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2절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찬 송

3절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해 동안 품게하신 기도제목과 소망을 적고 나눠보세요.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새찬송가 85장

다 같이

가족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라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게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것을 배웠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겐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다리며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지만, 탄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말고, 바벨론 땅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울고, 떼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 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넘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한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수 없이 변하지만,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만 우리가 거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의 이 능력 안에서 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